

[연합뉴스] 중소기업 중국 녹색시장 진출 지원

[연합뉴스] 중소기업 중국 녹색시장 진출 지원 (2012.3.21)

중기청·산학연, '한·중 녹색협력 강화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 중소기업청과 한국산학연합회는 21 일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녹색성장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사업화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한·중 산학연 녹색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가운데 중국 진출이 유망한 녹색과제를 선정한 뒤 중국의 세계적인 산학협력 대학인 칭화대학과 다오지중화공사를 활용, 한국 녹색기업의 현지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오는 23 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녹색협력 강화 포럼'이 열린다.

중소기업청과 칭화대학이 주최하고 산학연합회와 다오지중화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위원장은 '한국의 녹색성장과 한·중 협력'을 주제로, '녹묘론(綠猫論)'의 주창자인 후안강 교수(칭화대 교수, 중국과학원 주임)는 '중국의 녹색성장과 한·중협력'을 주제로 각각 기조를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양국 전문가 50 여명이 토론을 벌인다.

녹묘론은 흑묘백묘론을 잇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이론으로 녹색강대국 실현을 위해 후안강 교수가 처음 주창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산학협력기관인 한국산학연합회와 칭다오지역의 무역,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칭다오 무역촉진위원회'는 칭다오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산학연합회 김광선 회장은 "중국이 최근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녹색강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게 됐다"면서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 녹색기업을 조기 발굴하고 단계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skim@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560867>